

남북한 언어의 차이(2)

金 敏 洙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2. 표준어와 문화어

한 나라의 규범이 되는 말이 표준어이며, 규범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대표적인 방언을 토대로 하여 인위적으로 가공해야 한다. 대표적 방언은 대개 그 나라 수도의 언어가 선택되는데, 그것은 중앙집권으로 인한 공통어의 성격이 가장 큰 까닭이다. 그래서, 1988년 1월에 정부고시로 공포된 '표준어 규정' 제1항에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즉 서울 방언을 토대로 사정해서 제정한다는 뜻이다.

나라의 수도는 법으로 규정한다고 생각되나, 서울이 수도라는 것이 어떤 법에 규정되었는지 자세히 알지 못한다. 그런데 1948년 9월에 제정된 북한의 헌법 제103조에도 수부(首府)는 서울시라고 했다. 이 규정은 법적 수도를 서울로 하되 통일된 후에 평양에서 서울로 옮기겠다는 의지였을 것이다. 그러나 1972년 12월에 공포된 새헌법 제147조에서 수도는 평양이라고 개정했다. 서울에서 평양으로 바꾼 뜻은 무엇인가? 그것은 국토의 현실화나 표준어의 규정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요컨대, 서울말을 토대로 한 표준어에서 평양말을 토대로 한 북한의 표준어로 바꾸는 대전환을 단행했다. 명칭도 표준어를 문화어(文化語)로 바꾸고, 그

에 상응한 인위적 가공을 서들렀다. 어학혁명이라는 말다듬기의 방법으로 말을 만들면서 방언을 골라 격상시키고 지명, 이름짓기도 다듬었다. 일방적 가공이라도 언어의 발전이라는 면이 없지 않겠지만, 이보다는 첫째 남북 간 언어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둘째 단일 언어에서 다른 두 표준어가 법적으로 공식화되었다는 민족적 비애가 더 심각하다.

2.1. 문화어와 낯선 말

북한에서도 광복 후 우리말 도로찾기와 함께 표준어 가꾸기에 힘써 왔으나, 적극적인 전환은 1966년 이른바 김일성의 5·14교시에서 시작되었다. 이 교시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있는 우리가 혁명의 수도인 평양말을 기준으로 하여 발전시킨 우리말을 표준어로 해야 한다고 하고, 명칭은 표준어라고 하는 것보다 그렇게 좋은 것은 못 되어도 문화어라고 고쳐 쓰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다. 그 명칭을 표준어라고 하면 마치도 서울말을 표준하는 것으로 그릇되게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실로 경악할 대전환이다. 그러면, 그 이면에 어떠한 속사정이 있었는가? 우선 5·14교시에서는 우리말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터를 잘 닦아야 한다고 전제하고, 모든 방면에 걸친 전략과 전술이 세워지는 혁명의 수도이며 요람지인 평양을 중심으로 하고 평양말을 기준으로 하여 언어의 민족적 특성을 보존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했다. 반면에 서울말을 기준으로 삼을 수 없는 이유로 영어, 일본말, 한자말이 마구 섞여 민족적 특성이 없어져 가는 잡탕말이기 때문이란 점을 부각시켰다.

그러나, 그런 이유는 그 나름의 명분이고, 실질적 이유는 평양을 법적 수도로 바꾸는 사정과 관련되어 있다. 수도가 1972년 새헌법에서 바뀐 것은 이에 앞선 7·4남북공동성명과 무관하지 않다. 1972년 공동성명에서 조국의 평화통일을 목표로 외세나 무력을 배제하고 이념이나 제도를 초월하여 은연히 피차 실체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즉, 독자적인 문화어는 이런 일련의 틀 속에서 구상하고 설정하게 된 것이다. 그러면, 표준어로서의 문화어는 우선 어떤 방언을 어떻게 수용했는가를 보기로 한다.

1) 평안 방언-표준어(문화어) 등의 관계

갑삭하다-가볍다, 고아대다-떠들다, 그지간-그사이, 까곤하다-깐깐하

다. 꿰지다-해지다. 내굴-연기. 늑다-싸다. 당콩-강남콩. 두리-주위. 드문히-자주. 말째다-까다롭다. 떳다-그치다. 문짬-문틈. 밭그다-벗기다. 배워주다-가르치다. 성성하다-성하다. 솜복-솜옷. 수월하다-쉽다. 아수하다-아쉽다. 어방-어림. 우야-일부러. 입성-옷. 점적하다-부끄럽다. 직발-곧장. 탁-턱-까닭. 해종일-온종일. 허제비-허수아비. 허줄하다-헐다. 헐하다-쉽다-싸다 등

2) 합경 방언-표준어(문화어) 등의 관계

가마치-누룽지. 나래-날개. 남새-채소. 내굴-연기. 담새다-때리다. 마스다-깨다. 물주리-물부리. 삐치다-참견하다. 상기-아직. 쓰겁다-쓰다. 우정-일부러. 인차-이내. 자래우다-기르다. 피탈-핑계. 허제비-허수아비 등

3) 기타 방언-표준어(문화어) 등의 관계

강구다-기울이다. 까다-여위다. 까들다-오그라들다. 덩다-더럽다. 때식-깨니. 무랍없다-허물없다. 무지다-쌓다. 번지다-넘기다. 별찮다-하찮다. 손세-손짓. 쇠우다-놀리다. 쇠다-기울다. 어뜩새벽-어둑새벽. 을교-용노. 지내-지레. 처뜨리다-해뜨리다. 턱자-터무니. 한지-한데 등

4) 방언 아닌 희구어(稀觀語)-표준어(문화어) 등의 관계

대상(對象)하다-상대하다. 룡말-농담. 묘준(瞄準)-조준. 못다-만들다. 병집-결합. 사양(飼養)-사육. 산생(產生)-생겨남. 상론(相論)-의논. 생신(生新)하다-새롭다. 서렬(序列)-대열. 신심(信心)-믿음. 안날-전날. 약비-단비. 양(養)하다-기르다. 유표(有表)하다-표나다. 재간(才幹)-재주. 조동(調動)하다-옮기다. 진감(震撼)하다-뒤흔들다. 타승(打勝)-이김. 타입(打入)-쳐넣음. 풍막(風幕)-천막. 한껏-반나절. 한뉘-한평생 등

5) 표준어(문화어)-방언적 의미

거북하다-부끄럽다. 두텁다-두껍다. 료해(了解)-알아봄. 방조(幫助)-도와줌. 선동(煽動)-부추김. 시위(示威)-보여줌. 어지럽다-더럽다. 인

망(人望)－신망, 장성(長成)－늘어남, 저어하다－꺼리다, 적중(的中)－알맞음, 허심(虛心)－솔직(率直) 등

요컨대, 문화어는 정식으로 제정한 북측의 공용어로서 규범이 되는 말이다. 그것은 물론 표준어이기 때문에 수도 평양 방언을 토대로 하여 가공한 말이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가공은 방언 및 다듬은 말을 심의하여 문화어로 수용하는 손질인데, 이 가공이 남북 간 언어의 격차를 재촉하는 요인이다. 우선 방언은 위의 예와 같이 북부 방언의 수용이 현저하다. 개중에는 4) 방언으로 잘못 보기 쉬운 회구어 즉 낯선 말, 5) 의미가 표준어와 다르게 쓰이는 말이 있는 것을 주의해 보아야 하겠다.

2.2. 방언과 다듬은 말

이러한 가공은 널리 통용되는 방언을 채택하거나 표준어에 없는 어휘의 방언을 격상시킨 것인데, 어느 고장 방언인지 다 밝히지 못했다. 방언 조사가 미비하여 방언의 전모가 불분명하고, 북측에서는 문화어로 수용한 방언을 방언에서 제외한 까닭이다. 위 3)의 예를 기타 방언이라고 한 것도 이런 사정에 연유한다. 어쨌든, 방언의 채택에서도 단순한 선택이 아닌 가공을 통하여 다듬었다는 사실이다. 宣德五 등(1991)의 자료를 검토하면, 방언의 승격에 따라 표준어에 가해진 변동은 다음과 같다.

6) 표준어－승격시킨 방언과의 동의 관계(괄호 속 북부 방언)

감기－고뿔(강기, 감기, 고뿔, 행불), 굶(역어유해 상61), 깨다－마스다(깨티다, 깨뜨(태)리다, 깨다, 마스다), 빼야(능엄경 1 : 16), 따리－또아리/따바리－따발/따발총(똥아(와)리, 따바리), 쏘아리(물명고 5 : 10), 매돌－망돌(망, 망돌(이)), 밧돌(물명고 3 : 2), 사과－능금(사과, 닝(능)금), 닝금(훈몽자회 상6), 상추－부루(쌈, 생추, 불기, 서쿠레이), 부루(훈몽자회 상8), 서랍－빼람(빼람(랍), 뺨(빼)비, 보비), 설합(역어유해 44), 쓰다－쓰겁다(쓰다, 씌(씩)다, 쓰겁다), 쓰며(능엄경 3 : 9), 여위다－패리다(패리(래)다, 예(여)비다), 여위신돌(월곡 62) 등

7) 표준어 폐기→방언 승격(괄호 속 북부 방언)

거위→계사니(계사니, 계사이), 겨유(법화경 2:14), 귀리→귀밀(귀밀, 귀일, 기일), 귀밀(월인석보 21:198), 달갈→달알(달겔, 달갈, 달겔, 달개리), 돌기알(몽산법어 44), 류성(流星)→별찌(별똥, 별똥, 별찌, 베리찌), 별똥(물명고 5:9), 옥수수→강냉이(강내(냉)이, 짱냉(내)이, 옥수끼, 옥시), 옥수수(역어유해 하9), 우유→소젖(소젖(이), 우유, 쇠젖, 세젖, 쇠젓이), 쇠젖(능엄경 3:26), 장인→가시아버지(가시아바(부)지, 가시아바니(이), 가시아바님, 가시(스) 아버지), 가시엄(염불보권문 18), 채소→남새(채소(수) 나무새, 남새), 칠토(변역박통사 상4), 채→채(채, 총채), 채(훈민해례 25), (하)고자→(하)고져, 브리고져(석보상절 9:7) 등

방언의 문화어 승격과 함께 중전의 표준어를 그대로 수용해서 생긴 것은 위 6)의 감기와 고뿔, 상추와 부루 같은 복수문화어다. 이것은 용하게도 1988년에 규정한 남측의 복수표준어와 똑같은 개념이다. 특히 이들 남부 방언을 북측에서 택한 것이 의아하겠지만, 이들은 문헌어로 소급되는 역사성이 있다. 방언형의 선택에서도 가령 동아리나 똥와리 같은 속된 형태를 버리고 따바리를 취했다. 이것은 방언의 수용에서 되도록 우아한 형태로 바꾸려는 당연한 기준을 적용한 귀결이라고 할 것이다.

반면에, 방언의 승격과 함께 중전의 표준어를 폐기해서 빚은 것은 위 7)과 같은 남북 간 언어의 격차다. 개중에는 표준어가 된 강냉이, 남새 등도 있지만, 장인, 옥수수, 달갈 등은 문화어에서 삭제했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말인 달갈을 버리고 남부 방언 달알(발음 달갈)을 채택한 것은 표준어의 심사에서 자체의 이론이 분분했던만큼 반드시 서울말의 말살이라고 할 것은 아니다. 그런데, 옥수수, 거위 등이 통용력이 적어 폐기했다면, 장인, 채소, 류성 등은 말다듬기에 따라 일부러 폐기한 것이다.

8) 대상어→다듬은 말→대상어(환언)

가로수→거리나무→가로수, 가분수→분자큰분수→가분수, 갈수랑→가문흐름랑→갈수랑, 련탄→빚은탄→련탄, 보어→보땀말→보어, 화산→불산→화산, 로타리→돌이판→로타리, 카타르→끈끈막염→카타르, 코드선→방안전기줄→코드선, 코일→줄토리→코일, 코크→마개여담이→코크 등

9) 대상어→다듬은 말→대상어(환원, 각립)

가발→덧머리-가발, 갈수기→가물철-갈수기, *기척→차렷-기척=기착, 명령문→시킴문-명령문, *심장→엽통-심장, 어음→말소리-어음, *지하→땅속-지하, *표준어→문화어-표준어, 그루뻘→분파-그루뻘, 카라→목달개-깃받이-카라, 카텐→창문보→창가림-카텐 등

10) 대상어→다듬은 말→다듬은 말(일부 환원)

가공선→공중줄→공중선, 루선→눈물샘→눈물선, 봉절→첫돌림→첫상영, 수경법→물가꿈법→물가공법, 연무기→내굴뿌무개→내굴분무기, 화산회→불산재→화산재, 마셀가공→알카리절임→알카리가공, 브라지어→유방대→유방띠→가슴띠, 크라셔→바숨기계→파쇄기 등

11) 대상어→다음은 말-다듬은 말(각립)

내구성→오래견딜성-질길성, 농액→짙은액-진액, 단면적→자름면넓이-자름면면적, 수성도료→물개기칠감-물칠감, 봉합→ 꿰매기-물림, *잠견→명주-명주천, *잠사→명주실-고치실, 치사량→죽는량-죽임량, 치즈→이틀-이발집, 카바→쇠우개-닭개-잇-보 등

지금의 다듬은 말은 이처럼 다듬었다가 버리고 버렸다가 되살리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다듬었다가 되살린 것은 김일성, 김정일의 어록 및 교사의 어휘를 공식화할 필요에, 남부 방언의 수용은 교육과 전파로 이미 형성된 광범한 통용력에 큰 이유가 있다. 특히 성역인 김일성 교사의 예시(*표)까지 수정한 것은 이례적이다. 그렇게 잦은 변동은 안정과 정착을 요구하는 문화어의 목표와 상반된다. 지적하고 싶은 문제는 바로 말다듬기와 문화어와의 상반된 목표를 어떻게 조화시키느냐 하는 것이다.

2.3. 제도 용어와 인지명

정치와 경제에 관한 제도적 명칭은 남북이 각기 법에 따라 설정하거나 개정하는 만큼 서로 모를 말이 많다. 기관, 단체, 시설, 직업, 지명 등 넓은 범위에 걸쳐 다양하고, 설명을 듣고서야 이해할 용어가 허다하다. 해당될 명칭과 함께 보이면, 우선 주석(대통령), 정무원(내각), 부장(장관), 부부장(차관),

최고인민회의(국회), 대의원(의원), 중앙재판소(대법원), 인민대학습당(국립중앙도서관) 등과 같다. 그것은 이념과 제도의 차이로 빚어진 격차인데, 이에 관한 용어를 설명과 함께 보이면 다음과 같다.

12) 북한의 제도에 관한 용어

교도대(敎導隊)(간부 육성하는 군부대), 연합기업소(기업합동체), 문예총(조선문학예술총동맹 약칭), 밥공장(취사 공급소), 사로청(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 약칭), 양생실(養生室)(콘크리트 굳히는 방), 양생원(양로원), 조국전선(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약칭), 초대소(초대인 숙소), 합영기업(외국과의 합자), 협동농장(집단농장)

결산분배(決算分配)(농업협동 결산의 연간분배), 공훈(功勳)칭호(수령, 지도자 지시관철에 특출한 명예), 구호(口呼)나무(항일빨지산이 썼다는 생나무), 량권(糧券)(식량표), 사양공(飼養工)(사육사), 상좌(上佐)(대령 아래), 씨리카트(silicate)벽돌(석회벽돌), 영예군인(상이군인), 옥류금(玉鬮琴)(현악기명), 통신원(집배원), 홍보산비료(보약 비료) 등

13) 북한의 특이한 촉진 운동

공작기계새끼치기운동(1대 이상 증산하자는 혁신운동, 1959. 5), 금요일로동(사무원의 정규적 노동, 1959. 3), 대안(大安)체계(집단적 공장관리, 1961. 12), 붉은별따기(경쟁성과의 표시), 삼화(三化)수송(관화(管化), 큰배아화, 삭도화 짐수송), 속도전(빠른 노력경쟁, 1974. 2), 5호담당제(五家作統 지도, 1958. 7), 정성운동(의료혁신운동, 1961. 7), 청산리방법(노동관리, 1960. 2), 평양속도(평양시 건설 같은 빠른 속도, 1958. 3) 등

14) 북한의 생소한 지명

자강도(慈(城)+江(界)道), 량강도(虛川江+長川江→兩江), 만경대(萬景臺)(평양 김일성 생가), 서해갑문(西海閘門)(황북 남포 방조제)

평남, 진남포→남포시, 후창군→金亨稷군, 함남 삼수군→新坡군→金正淑군, 영흥군→金野군, 풍산군→金亨權군, 함주군→五老군→榮光군, 함주군→退潮군→락원군, 함북 경원군→새별군, 경흥군→恩德군, 성진시→金策시, 웅기군→先鋒군

평양 광복거리(신가로), 락랑거리→통일거리, 평화동→凱旋동, 중산 장안리→萬豐리, 평성 한왕리→慶事리, 강계 고계동→長者동, 창성 황청리→革新리, 함흥 경흥리→금실동, 구룡1동→금빛동, 구룡2동→은빛동, 룡흥동→흰실동, 치마1동→해빛동, 치마2동→精誠동, 원산 철산1동→凱旋동, 철산2동→勝利동, 온성 심청리→王財產리, 은덕 장안리→안길리, 고산 석왕사리→光明리, 서흥 당현리→恩情리, 신천 룡동리→근로자리, 개성 태평동→榮光동, 삼수 신갈파리→김정숙읍 등

이러한 명칭은 남북의 언어소통에 최대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다. 북측의 독자적인 명명이기 때문에 남북분단의 상태에서 모르는 것이 오히려 당연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남북교류로 막상 만나다면 이런 말이 통할 리가 없고, 옛 지명을 가지고 고향을 찾아가기도 여간 아널 것이다. 바로 이것이 남북언어 사이의 가장 심한 장애요인이다. 반면에, 명명이 아닌 이국의 지명에서 차이가 많은 것은 의외의 현상이다. 이런 차이도 실제 대화에서는 무엇을 가리키는지 소통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15) 남-북 외국지명의 차이(3.3 참조)

네덜란드-화란, 독일=독일, 러시아-로씨야, 루마니아-로므니아, 멕시코-메히꼬, 베트남-웬남, 바티칸-바티까노, 스웨덴-스웨리에, 시베리아→씨비리, 카이로-까히라, 코트디부아르-상아해안, 폴란드-뿔스카, 헝가리-헝그리아 등

16) 어린이 이름짓기

(충심) : 충성, 충실, 충심, 충신, 충복, (보은) : 은덕, 은혜, 은정, 은택, 영광, (혁명) : 혁신, 전진, 선봉, 억세, 세찬, 세찰, 노을, 철이, (건설) : 솔, 솔이, 별, 보람, 참, 한길, 범, 억척, (피어남) : 모란, 함박, 목란, 동백, 꽃, 꽃순, 꽃실, 꽃봉, 꽃단, 꽃술, (빛남) : 달, 달매, 달순, 달미, 달이, 별, 별이, 은별, 옥별, 꽃별, 별남, 별녀, 별순, (출생시) : 봄, 봄이, 봄숙, 봄철, 열매, 아침 등

외국의 고유 명사는 일본말이나 중국말이 아닌 그 나라 발음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좋다는 1·4교시에 따라 외래어 표기를 1969년에 원음주의로 크게 전

환했다. 현행은 1981년에 원음주의로 크게 전환했다. 현행은 1981년 10월에 수정한 것인데, 이상한 것은 현지음이 아닌 독일, 상아해안, 화란 등과 같은 한자식 국명이다. 궁금한 것은 베트남에 대한 '웰[웬]남'의 발음이다. '맑[막]스'의 발음은 밝혀졌으나, 움라우트(umlaut)나 헨리(Henry) 같은 표기의 발음도 궁금하다. 외래어의 차이는 결국 격차가 구축된 곳까지 스며 있다는 실증이다.

요컨대, 표준어와 문화어의 모든 상치는 단일민족의 단일언어를 파괴할 이질화의 핵이다. 앞으로 이질화의 확산이 심히 우려된다는 뜻의 핵이다. 그러나, 명명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16)과 같은 이름짓기에서는 아무 격차도 없다. 이것은 조상들이 이름도 한자말로 지었으나, 앞으로 어린이 이름은 고유어로 짓는 것이 좋겠다는 1966년 5·14교시에 따른 모형이다. 이어 1966년 7·12교시에 따라 일본식 '~자' 여자 이름을 이미 정리했다는 것은 일제 잔재의 청소라는 뜻에서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2.4 문화어의 표준 발음

표준어와 문화어에서 각기 표준으로 삼고 있는 발음은 겉보기보다 차이가 많다. 우선 모음 ㅓ를 평순(平聲) 후설 반개(중저)모음 [ɔ]라고 한 것이 문화어의 표준이다. 이것은 어[오]마니, 언[은]제와 같이 ㅓ에 가깝게 들리는 평안방언의 발음이다. 지금 세대가 거의 발음하지 못하는 ㅓ[∅], ㅓ[y]를 단모음이라고 한 것도 표준어와 다르다. 표준어 규정에서는 ㅓ[ㅓ+ㅓ], ㅓ[ㅓ+ㅣ]와 같은 이중모음으로 발음할 것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례를 들어 남북의 차이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17) 남-북 모음의 발음차이

어머니-어[오]머니, 어렵다-어[오]렵다, 어디-어[오]디 등, 괴뢰/[괘
괘]-괴뢰, 되/[웨]-되, 외치다/[웨치다]-웨치다, 뇌/[웨]-뇌, 최/
[웨]-최 등, 귀/[구ㅣ]-귀, 쉬/[수ㅣ]-쉬, 휘/[후ㅣ]-휘 등

18) 남-북 ㄹ, ㄴ 뒤음의 발음(원칙)

여관-려관, 논문-론문, 누각-루각, 이론-리론, 나사=나사, 나팔=
나팔, 요기=요기, 용광로[노]-용광로[로], 배열=배렬[열], 순열-순

렬, 순이익-순리익 등, 여사-녀사, 요소-뇨소, 이탄-니탄 등

현저한 발음의 차이로 흔히 지적하는 것은 ㄹ, 니의 두음이다. 자세히 보면, 두음만 아니라 용강로, 선렬 같은 제2음절 이하에서도 발음하는 것이 특이하다. ㄹ 발음은 다음 19)와 같이 넓지[널찌]-[넙찌], 넓소[널쏘]-[넙쏘] 등에서도 상반된다. 이와 함께 남북 간의 차이는 복합어의 사잇소리와 한자음에도 나타난다. 사이스 표기와 직결된 사잇소리는 1987년 규범에서 허용하던 다음 20) 가위밥[햐] 같은 발음이 규정으로 바뀌었다. 이런 남북의 접근은 모두가 갈망하는 통합으로 향하는 서광이다.

19) 남-북 ㄹ의 발음차이

넓다[널따]-[넙따], 넓지[널찌]-[넙찌], 숲소[솔쏘]-[솨소], 애달다[애달따]-[애답따], 얹지[알찌]-[압찌], 엽소[열쏘]-[엽쏘], 엽뽀다[열뽀따]-[엽뽀따], 엽푸르다[열푸르다]-[엽푸르다], 짹지[잘찌]-[잡찌], 툇소[털쏘]-[툇쏘] 등

20) 남-북 사잇소리의 차이

나뭇순-나무순, 마을사[싸]람-마을사람, 뽀소[쏘]식-뽀소식, 안사[싸]돈-안사[싸]돈, 배갯잇=배개잇[갯닛], 갯바닥=개바[빠]닥, 노래소리=노래소[쏘]리, 나뭇잎-나무잎, 옷잇-요잇 등

가위밥=가위밥[가위햐], 뺏전=배전[배쩡], 쇧돌=쇠돌[쇠뽀], 잇새=이새[이쌔], 잇몸=이몸[인몸], 솯여우=수여우[순녀우], 솯양=수양[순냥] 등

또 다른 발음의 차이는 북측의 방송에 나타난 어조(語調)의 전형(典型)이다. 먼저 단어의 장음은 1966년 규범에만 규정했던 길고 낮은 소리를 1992년 '대사전'에서 비로소 길이와 분광기로 측정한 높낮이를 구별했다. 장단은 남북의 차이가 많고, 고저는 대중의 의식이 확호한지가 의문이다. 어조는 서울의 방송에 나오는 여자의 간드러지게 아양떠는 소리, 남자의 웰레웰레하는 소리는 가공된 음색이며 혁명적 미감에 맞지 않는다고 배척하고, 다음 22)와 같은 음색을 세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21) 북-남 단어의 장음(:)과 고저(° 고, ° 저)

감 : °(柿)/감°(往), 눈 : °(雪)/눈°(眼), 밤 : °(粟)/밤°(夜) 등, 가 : °담°(加担)-가담, 가°시 : °(荊)-가시, 가°장 : °(假裝)-가 : 장, 곱 : °다°(麗)-곱 : 다, 사 : °람°(人)-사 : 람 등, 가°루°(粉), 곱°감°(乾柿), 갈°다°(交, 磨, 耕), 갈°이°(耕) 등, 가°만 : °히°-가만히, 가 : °는°귀°-가는귀, 감 : °나°무°-감 : 나무 등, 각°시°늘°음°, 가°래°나°무°, 가°래°질°군°, 가°뜯°하°다°, 가°운°데°소°리°, 가°죽°주°머°니° 등

22) 노동 계급의 귀맛에 맞는 음색

수령에 대한 존경 : 깊은소리, 강조에 더 깊은소리, 느린 속도.
 사회주의에 대한 만족 : 맑은 소리, 강조에 깊은 소리, 조절된 속도.
 계급적 원수에 대한 증오 : 맑고 탄력있는 소리, 조절된 속도에 높은 소리 등.
 깊은 소리(속소리) : 주파수 35~1,200, 음압(音壓) 강, 감탄하거나 감동되거나 놀랐을 때.
 맑은 소리 : 기본발성, 깨끗하고 명랑한 소리.
 맑고 탄력 있는 소리 : 적개심과 증오의 목소리, 모든 발음에 힘을 주며 입술과 목을 긴장시킨다 등.

요컨대, 남북의 발음차이는 모음, 두음, 겹받침, 사잇소리, 장단음, 어조 등의 부분에서 각기 지향하는 전형에 나타난 것이다. 전형이 설정한 기준이라는 뜻에서 반드시 전형 그대로가 남북의 격차는 아니다. 이 차이는 실제로 계층이나 지역에 따른 현상이기 때문에, 대개는 남북의 경계를 넘어 다소간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면, 이런 종류는 남북의 격차로 우려할 것이 못 된다. 지금까지 흥미위주로 즐겨 너무 과장하던 남북언어의 차이를 이제는 정확히 밝히고 대처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1995. 5. 27)

참 고 문 헌(계속)

리상벽(1975), 조선말화술, 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국어사정위원회(1982), 외국말적기법, 평양 :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문교부(1988), "표준어규정", 관보 10,837(1988.1.19), 32~64.

宣德五, 趙習, 金淳培(1991), 朝鮮語方言調查報告, 延吉: 延邊人民出版社.
金敏洙(1991), “北韓의 口語體言語에 대한 考察”, 한국어연구논문집(KBS),
20(1991.10), 3-34.
(전호 정정: 214면 1행 ‘강남콩=당콩’→〈삭제〉, 10행 ‘어깁다리’→구름다리,
19행 ‘케이블(kable)’→케블(cable), 23행 ‘모터찌클→오토바이’→모터찌클-오
토바이, 25행 ‘丹珠筆’→圓珠筆, 31행 ‘기름과자’→기름사탕, ‘콜셋→몸매띠’
→코르셋-몸매띠)